

전남도, 적조·고수온 본격 대응체제

대책위 회의서 예방 대안 모색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광역 일제 방제작업 동참 당부

전남도가 '2022년 적조·고수온 종합대책'을 마련, 7일 '도 적조대책위원회'를 열고 양식어업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적조·고수온 종합대책에 대해 시군과 양식어업인, 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누고 대응 지원 방제장비 구축, 예찰·예보 인프라 확충, 민·관 합동 현장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북극 이상고온에 따른 제트기류 약화와 기압계 정체로 폭염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 평년보다 수온이 1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수온은 지난해보다 15일 정도 빠른 7월 초·중순부터 시작되고, 7월 중순께 적조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돼 양식장 밀집 지역인 여수와 고흥, 완도 등을 중심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중심적 대응체계 확립 ▲예찰·예보 인프라 확충 ▲민·관 합동 현장 대응 ▲피해예방 관계기관 협업 강화 ▲피해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 등 한층 강화된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9일 여수 남면 화태도 해역에서

선박 44척(도 2·여수시 4·해경 2·어선 36)을 동원해 적조발생 상황을 모의로 정한 후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2022년 적조 방제 모의훈련을 개최해 실천대응능력을 한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 장기화와 수산물 소비부진으로 양식어업인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적조·고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경이 하나 돼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자기어장 지키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적조 발생 시 광역적 일제 방제작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지속된 고수온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서 11개 시군, 3,759어가에서 175억 원의 양식 수산물 피해가 발생했다. /길용현 기자

'2위' 이정현, 총선 출마 벌써 관심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지사 선거에서 보수 정당 후보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함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해 18.81%의 득표율을 기록, 김영록 당선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제1회 지방선거에서 전석홍 민주당 후보가 기록한 26.49%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앞선 7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2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이 후보가 동부권 등의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순천시 선거구에 출마해 두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는 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순천과 곡성 등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의 지역별 득표율을 살펴보면 고흥인 곡성에서 40.97%, 순천 31.98%, 광양 22.77%, 구례 22.14%, 부성 19.98% 등 동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 후보는 낙선 인사를 통해 "전남의 변화를 분명히 읽었다. 희망을 품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광주시, 인권교육 활동가 역량강화 나선다

10일부터 3일간 기본과정 운영

광주시는 지역 인권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도시의 기반이 되는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3일간 일가정양립 지원본부에서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기본과정'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역량강화 기본과정은 인권마을 대표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인권 관련 단체 직원, 인권교육활동가 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권교육의 기본이 되는 인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등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강의식 보다는 모둠 토론, 발표 등 학습자 중심의 강의로 진행한다.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지난

해부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 심화과정에는 교육시연 평가를 통해 인권강사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게 된다. 평가 통과자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강사로 기관에 추천하는 등 인권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건열 시 민주인권과장은 "인권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며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과정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인권강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한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과정을 통해 인권활동가 189명이 수료하고 지역사회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복원 기념식이 7일 오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 구충곤 화순군수, 박석무 고 홍남순 기념사업회 이사장, 홍기훈 유족 대표 등 참석자들이 생가복원사업을 기념하는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 고 홍남순 변호사 민주정신 기려

화순 생가복원 기념행사 참석 "시대의 의인... 인권정신 계승"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오전 화순 도곡면에서 열린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복원 기념행사에 참석해 그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정신과 삶을 기렸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유족인 홍기훈 전 국회의원, 박석무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구충곤 화순군수, 정대철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홍남순 변호사는 긴급조치법 위반사건 변론, 양심수 변론 활동을 펼친 인권변호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광주시민 학살에 항의하는 행진을 펼치다 내란 수괴 혐의로 1년 7개월의 옥고를 치르며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에 기여한 '재야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는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9년부터 군비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 2020년 사업이 완공됐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날에야 열렸다.

김 지사는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시대의 의인'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그 정신은 우리 모두가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사명"이라며 "그 정신을 본받아 도민의 생명과 인권을 하늘처럼 여기고, 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대동세상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원된 생가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민주·인권 기념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길용현 기자

정기 브리핑

김희재, 통행료 개선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의원이 7일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통행료를 미납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에만 통행료의 3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20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도 징벌적 통행료 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사소한 실수나 과실이 없는 미납 행위조차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과실과 고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벌적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징벌적인 부가통행료가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의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